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윤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룩셈부르크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10,34-37-43

회답송 | 시편 118(117),1-2.16-17.22-23(◎ 24)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제2독서 | 콜로 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20,1-9

영성체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0 예물준비 1 영성체 129
파견(성가대특송) “An Easter Cry of Praise”

신앙고백 : 사도 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계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파견〉



✦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찬봉사	복사
4월 20일	정유진	강호영	박인영	이경자	이영혜	한서희 최예준 김수현 이예진 조성윤
4월 27일	조소연	국민준	민덕미	장민우	김영숙	조성윤 한서희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환자, 어르신을 위한 방문교리 *신청: Sr.마리루시

* 4/19(토)-4/21(월)까지 고해성사 없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재속프란치스코회 바자회(Bazaar)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5년 5월 4일(일) 9:00 am ~ 4:00 pm

장소: 성 프란치스코의 집

(147-07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이경남 엘리사벳 - 민병택 베드로	
생미사 지향	
- 구지은 베로니카 - 이태경 막달레나 - 이영애 레지나 - 정서원 클라라 - 세례 축하 - 박상일 스테파노 - 김흥기 안드레아 - 김승연 안나의 부(父)친	

5월 11일 성소주일

성소주일을 맞아 미사 중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꼭 참석하도록 부모님들께서 배려해 주십시오.

요셉회 & 성모회 야유회

일시: 4월 26일(토) 10:30 A.M- 5:00 P.M

장소: 브루클린 식물원(BrookKlyn Botanic Garden)

* 시내교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5월 성사반 개강

어린이: <첫영성체반> / 학생·성인: <견진성사반>

(견진성사 대상: 2025년 3월 이전 세례성사 받으신 분)

교리일정·시간: 5/4, 5/11 5/18. AM.11:00-12:00.

첫영성체반(신부님): 코리안 오피스

견진반(수녀님): School 3A

첫영성체/견진성사 날짜: 5월 25일 청소년주일 미사 중

문의: 646. 832. 7397(Sr. 마리루시)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sb@gmail.com)

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3명), 중고등부(2명)

지원자격: Back Ground Check 완료하신 분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사회복지 분과 위원 모집

사회복지 분과에 함께 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모집 인원: 4명

문의: 516. 521. 3113 강호영 안드레아

본당 제의방 봉사자 구합니다!

본당 요청으로 미사 때마다 사용하는 모든 성작 관리 및 성작수건 세탁 봉사하실 분을 구합니다.

신청: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2025 레지오 마리에 단원 모집

"레지오마리에"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봉사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입니다.

구세주의모후Pr. 회합: 매주일 8am 단장: 347. 633. 3767

희망의 모후Pr. 회합: 매주목 6pm 단장: 347. 514. 5783

우리즐거움의원천Pr. 회합: 매주일 11:10am

단장: 929. 208. 5147

* 모집 대상: 세례 받은 남녀 교우(어른, 청·장년)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은총이
모두에게
풍성히 내리길 기도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 WINE & WEST 8 LIQUOR

린다킴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성화 해설



<밤의 빛 속 막달레나(부분)>

조르주 드 라 투르 (Georges de La Tour, 1593-1652)

1642-1644, 캔버스에 유채, 128x94cm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파리

라 투르가 그린 막달레나는 오른손을 해골에 얹고 촛불을 보며 묵상하는 모습입니다. 책상에는 성경이 놓여있고 십자가 위에 채찍이 올려져 있습니다. 해골은 인간의 죽음을, 십자가와 채찍은 수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말씀(성경)은 인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촛불이 모든 것을 비춥니다. 막달레나는 죽음과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빛을 봅니다. 그녀는 예수님 죽음의 목격자이며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밝힙니다.

-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2025 부활 메시지(요약)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희망의 순례자’ 희년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이 희년에 맞이하는 부활은 더욱 큰 기쁨과 깊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특히 희망에 관하여 묵상하게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요란한 사건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화려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식의 부활 발현 이야기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저 ‘빈 무덤’의 표상을 통해서, 실패의 좌절과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 곁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그것은 온유한 승리이며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별과 상실의 슬픔 속에 울고 있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당신 현존을 드러내십니다.(요한 20,11-18 참조) 이렇듯, 지금 삶의 온갖 시련으로 아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옆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현존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 위로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떠나보낸 실망 속에 침통한 마음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당신 말씀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십니다.(루카 24,13-35 참조) 이렇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생 여정에서 온갖 실패와 실망을 겪으며 힘겹게 걸어가는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십니다. 또한 말씀과 성찬의 나눔을 통해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벽차오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숨어서 문을 잠그고 무서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와 평화의 인사를 전해 주십니다.(요한 20,19-23 참조) 또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나타나시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요한 21,1-14 참조) 이는, 그분께서 사회 안의 여러 분열과 갈등의 긴장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선사하시고, 불안과 불신의 밤을 지새우며 헛수고에 지쳐버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힘을 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 갈등과 긴장 속에서 분쟁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을 보며, 또 빈곤과 질병의 세계적 고통과 전 지구적인 극심한 기후 위기,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분열과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느냐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왜 세상의 어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시련 속의 우리 곁에 신비로이 현존하신다는 믿음과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을 당장에 없애주거나 마술 같은 모습으로 해결책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신비를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인류의 고통과 함께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의 위대함에 새롭게 눈뜨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기대와 희망,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강한 확신, 그래서 현실의 불의와 질곡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의 비전, 곧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좌절시키는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25년 정기 희년 선포서의 제목처럼, 결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오늘의 부활 체험은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기대와 희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또 삶의 참다운 가치가 실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이 희망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하느님의 약속을 향해 온 인류가 ‘함께 걸어가는길’(시노드)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희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여정에서 희망의 용감한 증인, 곧 하느님 자비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